

## 화성시 중학생의 구강건강 실태, 인식 및 치과치료에 관한 개별반응 조사

신명숙<sup>1</sup> · 한지형<sup>†</sup>

<sup>1</sup>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 A Survey of Oral Health State, Oral Health Awareness and Dental Treatment perception for Middle Schoolers in Hwaseong

Myung-Suk Shin<sup>1</sup> and Ji-Hyoung Han<sup>†</sup>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Suwon City, Gyeonggi-Do 440-714, Korea

Dept. of Dental Hygiene, Eulji university, Seongnam City, Gyeonggi-Do 461-713,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ral health state,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ealth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a bid to raise concerns about oral health problems in a local community and help ensure the efficiency of oral health program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62 seventh graders in 14 different middle schools located in the city of Hwaseo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indices related to dental caries, DMFT index numbered 2.0. Secondly, as to subjective oral health state, 22 percent of the boys and 10.9 percent of the girls found their own oral cavity to be healthy, and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p=.000$ ). Thirdly, in regard to tooth-related habits, the girls brushed their teeth more often than the boys( $p=.000$ ). Fourthly, for snack-intake habits, the largest number of the boys ate between meals once(42.1%), and the second largest group of them did it two or three times(31.3%). Fifthly, regarding how they felt about dental treatment, the greatest number of the boys and girls replied there's nothing special when they were asked about their mood in case of seeing a dentist next day. The second largest group answered they would get a little nervous. As to mood while waiting for treatment, the greatest number of the boys and girls answered they would get a little nervous. In regard to mood while lying on a dental chair, the largest group replied they would be nervous. Concerning mood while lying on a dental chair for scaling, most of them answered they would get nervous.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Oral health state, Oral health awareness

## 서 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사회단체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민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이며 삶의 질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안악면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말한다<sup>1)</sup>.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치아우식증 신생률은 연소자에게서 높으며, 고령자에서는 낮고, 음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개발도상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치

아에 많이 발생된다. 또한 다양한 통증을 유발시키고, 구강조직기관과 그 인접조직기관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 병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연소자에서 치아를 발거하게 되면 부정교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치아는 경조직을 손상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여 결손되면 일생을 통하여 재생되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나 보건학적으로 보더라도 발생 이전에 예방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up>2)</sup>.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비교되는 지표인 12세 아동의 치아우식경험치아수가 1995년 3.11개, 2000년 3.30개, 2003년 3.25개, 2006년 2.16개로 증가 내지 정체 추세가 감소추세로 변화되었다<sup>3)</sup>. 이는 그동안의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난 결과로 구강건강추세를 전환하는 놀라운 수치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약 3배 정도 높은 상태이므로 구강보건

<sup>†</sup>Corresponding author  
Tel: 011-9714-2889  
Fax: 031-740-7352  
E-mail: najochil@empal.com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 걸쳐 그 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구강보건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sup>4)</sup>. 또한 김 등<sup>5)</sup>은 12세 구강건강실태는 학교구강보건사업과 치아우식증 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도 하며, 지역간, 국가간 비교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서 공중구강보건사업의 부분인 각 지역사회는 지역 실태에 근거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들이 치과를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치과 치료내용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극심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학생의 치과방문시 느낌을 참고하여 치과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고 그들의 치과치료에 대한 느낌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비롯한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강건강상태조사를 위해 영구치우식증의 비교 연령인 화성시 만12세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화성시의 관할구역 20개 중학교 중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15개를 층화표본추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전문가 직접구강검사와 자가기입식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671부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9부를 제외한 662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Table 1).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기위한 직접구강검사는 구강건강지표조사를 바탕으로 탐침(Explorer, HAMMACH), 치경(Dental mirror, HAHNENKRATT), 공기총 등을 이용하여 구강건강조사 기준과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거친 6명의 조사자가 피검자를 검사하였으며, 조사내용에 우식경험영구치지수, 우식경험영구치율, 우식영구치율, 치치영구치율을 포함하였다.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조사는 자가구강건강상태, 잇솔질과 치실사용, 간식 습관, 치과치료에 대한 느낌을 조사하였으며, 내용은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sup>3)</sup>에서 사용한 구강설문 내용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였다.

###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영구치 치아우식증 관련 주요지표 산출방법을 통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하였으며, 구강건강인식 및 치과치료에 관한 개별반응의 문항은 성별 비교분석을 위해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Ver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 1. 구강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현재 구강건강상태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건전치율이 83.22%로 여학생이 83.59%로 남학생 82.47%보다 높게 나타났고 우식치율과 우식경험상실치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

Table 1. The number of surveyed students for analysis of this study.

Unit: N(%)

School name Sex	Gian	Dong tan	Dong hak	Byoung jeum	Ann hwa	Jung nam	Jin ann	Ann yong	Jan ann	Nam yang	Song san	Seo shin	Hwa do	Be bong	Total
Male	19 (2.9)	14 (2.1)	21 (3.2)	22 (3.3)	26 (3.9)	16 (2.4)	22 (3.3)	23 (3.5)	-	14 (2.1)	-	12 (1.8)	13 (2.0)	12 (1.8)	214 (32.3)
Female	20 (3.0)	11 (1.7)	14 (2.1)	16 (2.4)	20 (3.0)	19 (2.9)	16 (2.4)	17 (2.6)	216 (32.6)	23 (3.5)	33 (5.0)	14 (2.1)	19 (2.9)	10 (1.5)	448 (67.7)
Total	39 (5.9)	25 (3.8)	35 (5.3)	38 (5.7)	46 (6.9)	35 (5.3)	38 (5.7)	40 (6.0)	216 (32.6)	37 (5.6)	33 (5.0)	26 (3.9)	32 (4.8)	22 (3.3)	662 (100)

Table 2. The result of oral health state for the surveyed sample

Unit: %

Classification	Health teeth rate	Caries teeth rate	Caries experienced treatment teeth rate	Caries experienced missing teeth rate	Non-caries experienced missing teeth rate	Sealant teeth rate	Non-caries experienced treatment teeth rate	Non-eruption teeth rate	Total
Male (N=214)	82.47	1.10	4.77	0.03	0.16	6.40	0.09	4.93	100.0
Female (N=448)	83.59	2.46	5.31	0.02	0.15	5.42	0.21	2.80	100.0
Total (N=662)	83.22	2.09	5.13	0.02	0.57	5.74	0.17	3.50	100.0

**Table 3. Indices related to dental caries according to sex**

Classification	Unit: %			
	DMFT rate	DMFT index	DT rate	FT rate
Male (N=214)	6.2	1.7	18.7	80.7
Female (N=448)	8.0	2.2	31.6	68.1
Total (N=662)	7.4	2.0	28.1	71.5

었다. 전색치율은 남학생이 6.40%, 여학생이 5.42%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우식비경험치치율은 여학생 0.21%로 남학생이 0.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맹출치율은 남학생이 4.93%로 여학생 2.80%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의 영구치 맹출이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치아우식증 관련 영구치의 주요 지표 산출결과 우식경험영구치율(DMFT rate)이 전체 7.4%로 남학생(6.2%)이, 여학생(8.0%)보다 약간 낮았으며,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역시 남학생 1.7, 여학생 2.2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우식영구치율(DT rate)은 전체 28.1%에서 남학생 18.7%, 여학생 31.6%를 나타내고 있으며, 치치영구치율(FT rate)은 남학생 80.7%, 여학생 68.1%로 남학생이 높았다(Table 3).

**2.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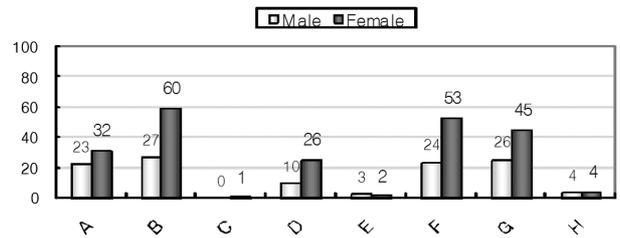
1) 자가구강건강상태

본인이 느끼는 자가구강건강상태를 알아본 결과 Table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22%가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11%정도만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특히 여자는 45%가 자가구강건강상태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있어서 구강건강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별간의 자가구강건강상태는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

**Table 4. Subjective oral health state**

Classification	Unit: N(%)		
	Male	Female	p-Value
Very healthy	2(0.9)	10(2.2)	0.000
Sort of healthy	45(21.0)	39(8.7)	
Not bad	105(49.1)	117(26.1)	
Sort of unhealthy	45(21.0)	54(12.1)	
Definitely not healthy	3(1.4)	6(1.3)	
Have no idea	14(6.5)	200(44.7)	
The others	0	22(4.9)	
Total	214(100.0)	448(100.0)	

p < 0.001



**Fig. 1. The number of answered sample for time of tooth brushing according to sex.**

A: Before breakfast, B: After breakfast, C: Before lunch, D: After lunch, E: Before dinner, F: After dinner, G: Before go to bed, H: After take a snack (unit: N)

2) 치아청결 습관

중학생의 치아청결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다. 잇솔질 시기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남학생은 '잠자기 전', '아침식사 후', '저녁식사 후' 등의 순을 나타내었으나 비슷한 빈도를 기록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아침식사 후'와 '저녁식사 후', '잠자기 전'이 많았으나 '아침식사 전'에 응답한 학생도 많게 나타났다. 점심식사후 잇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잇솔, 치약 등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라고 응답한 남학생 50.9%와 여학생 26.0%로 가장 높았

**Table 5. The result of tooth cleanness related habit for the sample according to sex**

Classification	Unit: N(%)		
	Male	Female	p-Value
I brush my teeth in general.	5(2.3)	25(6.5)	P=.000
Inadequate facilities(waterworks or sink)	17(7.9)	21(5.5)	
It's onerous to carry a toothbrush or toothpaste.	109(50.9)	100(26.0)	
I have no time to do that.	18(8.4)	16(4.2)	
I don't feel the need for that.	9(4.2)	4(1.0)	
My friends don't do that.	29(13.6)	32(8.3)	
I have no idea.	27(12.6)	39(10.2)	
No answer.	0	147(38.3)	
I floss my teeth often.	6(2.8)	22(4.9)	P=.000
I floss my teeth from time to time.	34(15.9)	60(13.4)	
I never do it though I know about it.	74(34.6)	190(42.4)	
It's the first time I have ever heard about it.	99(46.3)	118(26.3)	
No answer.	1(0.5)	58(12.6)	
Total	214(100.0)	448(100.0)	

p < 0.001

Table 6. The result of snack -intake habit for the sample according to sex

Classification	Unit: N(%)		p-Value
	Male	Female	
Frequency of eating between meals yesterday			
Once	90(42.1)	88(19.7)	p=.000
Two or three times	67(31.3)	112(25.1)	
Four times or more	11(5.1)	84(18.8)	
I had no snack.	39(18.2)	154(34.5)	
I don't remember it.	7(3.3)	8(2.0)	
Types of preferred snack			
Confectionery	90(42.1)	204(45.5)	p=.006
Vegetables, fruits	44(20.6)	118(26.3)	
Canned foods, fruits	2(0.9)	16(3.6)	
Soda or soft drinks	17(7.9)	34(7.6)	
Fruit juices or ionized drinks	22(10.3)	22(4.9)	
Milk	18(8.4)	16(3.6)	
Flavored milk	13(6.1)	27(6.0)	
Fast foods	8(3.7)	11(2.5)	
Total	214(100.0)	448(100.0)	

p &lt; 0.001

으며, 치실사용 유무에서 남학생의 경우 46.3%가 '처음 들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42.4%가 '알고 있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 Table 5).

### 3) 간식 섭취 습관

중학생의 간식 섭취 습관결과 Table 6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어제 섭취한 간식횟수가 1번이라 응답한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2~3번이 31.3%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간식을 먹지 않았다가 3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2~3번이 25.1% 순으로 나타났다(p=.000). 주된 간식 종류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40% 이상이 '과자와 케익, 사탕류'로 우식성 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6).

### 4) 치과치료에 관한 개별반응

조사 대상자들의 치과치료에 대한 개별반응을 조사한 결과 Table 7과 같다.

내일 치과에 간다면 기분이 어떨것냐는 질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43.9%와 30.8%로 '별다른 느낌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불안하다'가 남학생 32.2와 여학생 21.0%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14.1%가 '즐거운 경험으로 기대된다'고 답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치과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으로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0). '치료받기 위해 기다릴 때'와 '치료받기위해 진료의자에 누워 핸드피스 소리를 들을 때'모두 '긴장된다'및 '약간 불안하다'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스켈링을 받기위해 진료의자에 누워 있을때'에 대한 응답에서도 '긴장된다'와 '약간 불안하

다'순이었으며 신뢰구간 9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0).

## 고 찰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식생활의 변화로 치아우식증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대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한 번 발생되면 자연적인 치유가 불가능하고 후유증이 심하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며, 구강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구강건강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특히 초등학교 시기를 지난 중학교 1학년인 12세 아동은 제2대구치가 맹출하여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구강보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획득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을 수행하는 건강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저자는 지역사회구성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 지역사회구강보건 개발의 일환으로 화성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실태, 인식 및 치과치료에 대한 느낌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중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치아의 현 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건전 치율이 83.2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 12세로 영구치 맹출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우식치를 비롯한 우식경험 및 상실치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세는 평균 제2대구치까지 맹출할 시기로 미맹출치율에서 남학생이 4.93%로 여학생 2.80%로 남학생의 맹출 시기가 여학생보다 조금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치아우식증 관련 영구치의 주요 지표 산출결과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가 2.0개로 나타나

**Table 7. The result of response for dental treatment according to sex**

Classification	Male	Female	Unit: N(%) p-Value
How do you feel if you are going to see a dentist tomorrow?			
I will be waiting for it.	7(3.3)	63(14.1)	P=.000
Nothing special.	94(43.9)	138(30.8)	
A little nervous.	69(32.2)	94(21.0)	
I won't feel good. It will make me feel pain.	29(13.6)	51(11.4)	
I will be scared.	15(7.0)	48(10.7)	
No answer.	-	54(12.1)	
How do you feel if you are waiting for treatment?			
I will be at ease.	34(15.9)	55(12.3)	P=.101
I will get a little nervous.	67(31.3)	139(31.0)	
I will get nervous.	84(39.3)	169(37.7)	
I will get nervous a lot.	18(8.4)	69(15.4)	
I will feel so uneasy, and I feel like I break into a cold sweat or get sick.	11(5.1)	16(3.6)	
How do you feel if you are lying on a dental chair?			
I will be at ease.	19(8.9)	47(10.5)	P=.054
I will get a little nervous.	58(27.1)	138(30.8)	
I will get nervous.	77(36.0)	174(38.8)	
I will get nervous a lot.	45(21.0)	78(17.4)	
I will feel so uneasy, and I feel like I break into a cold sweat or get sick.	15(7.0)	11(2.5)	
How do you feel if you are lying on a dental chair for scaling?			
I will be at ease.	37(17.4)	36(8.1)	P=.010
I will get a little nervous.	58(27.2)	134(30.0)	
I will get nervous.	79(37.1)	180(40.3)	
I will get nervous a lot.	30(14.1)	80(17.9)	
I will feel so uneasy, and I feel like I break into a cold sweat or get sick.	9(4.2)	17(3.8)	
<b>Total</b>	<b>214(100.0)</b>	<b>448(100.0)</b>	

p < 0.001

1995년 부산광역시의 3.1개, 1996년 과천시의 3.0개, 1997년 남양주시의 3.5개, 1999년 강릉시 2.2개<sup>5)</sup> 및 2005년 성남시 2.7개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이는 2003년과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3.3개와 2.2개보다도 낮게 나타났다<sup>7),8)</sup>. 이러한 결과는 비록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높지만 증가 내지 정체 추세가 감소추세로 변화되었으므로 추후 잇솔질 뿐만 아니라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등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식영구치율(DT rate)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고, 치치영구치율(FT rate)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아우식증에 대한 치치가 남학생이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2%가 건강하다고 느끼고, 여학생은 11%만 건강하다고 답해 이는 2006년 국민구강실태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2/3 가량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해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40대 중반 이후에는 “구강건강에 대해 항상 걱정하다”가 1/3을 넘었다고 조사되었다<sup>3)</sup>.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년기와 노년기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기관으로 갈수록 철저한 구강보건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정확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학생의 치아청결 습관에서 아침식사 후, 저녁식사 후 및 잠자기 전이 많았으나 점심식사 후 잇솔질을 하는 학생이 26%로 나타나 이는 김<sup>9)</sup>등의 점심식사 후 잇솔질이 11.7%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점심 식사 후 잇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sup>3)</sup>에서 아동 점심식 후 잇솔질 실천율이 27%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점심식사 후 잇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잇솔, 치약 등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라고 답해 공부에 치중한 나머지 구강건강관리는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속적인 구강건강습관을 확보하기위해 학교 사물함에 잇솔과 치약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구강보건실은 운영되지 않지만 보건교육을 통해 잇솔질과 잇솔질 시기, 구강위생용품의 종류와 사용법 및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의 간식 섭취 습관에서 남학생이 1회가 42.1%와 2~3회가 31.3%, 여학생이 1회가 19.7%와 2~3회가 25.1%

로 남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sup>10)</sup>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간식 섭취 횟수 1회가 61%와 2회가 27%의 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는 간식을 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된 간식 종류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40% 이상이 '과자, 케익과 사탕류'로 우식성 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식의 실태와 치아우식증과의 관련성은 간식의 횟수가 많을수록 치아우식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sup>11-13)</sup>, 우식성 식품의 간식섭취 횟수가 많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치료할 치아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간식섭취 횟수 조절의 필요성이 아직까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Loscin<sup>14)</sup>은 환자들이 치과를 찾는 주된 요인은 통증이며, 이때 환자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고, 치료 자체에 대한 불안과 함께 통각을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치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켜 환자들에게 치과치료 받기를 두려워하게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의 치과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결국 질병이 악화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화성시 중학생의 치과치료에 대한 느낌으로는 내일 치과에 간다면 기분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43.9%와 30.8%로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약간 불안하다'가 남학생 32.2%와 여학생 21.0% 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14.1%가 '즐거움 경험으로 기대된다'고 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치과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구강보건지식과 인식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조기치료로 어렸을 때부터 치과에 내원한 경험이 많고,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치과치료의 노출이 잦으며, 치과병(의)원 실내 환경도 이전 전형적인 병원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고급화된 인테리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치과치료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거부감이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중학생들은 영구치열기가 막 완성된 시기로 비교적 건강한 치아를 보유하고 있으나 학업 등으로 인해 구강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다행히 치과진료에 대한 큰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적어 정기적인 구강검사와 조기치료를 권장하고 더불어 구강보건교육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만 실시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이 중학교에도 확대되어 실시된다면 청소년기로 막 접어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구강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인식 및 행위를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화성시 14개 중학교 1학년 총6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치아상태 검사결과 건전치율이 83.22%로 아직까지 건전한 구강환경을 갖고 있었으며, 치아우식증관련 지표 산출결과에서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평균 2.0이었으며, 여자가 2.2로 남자 1.7보다 높았다.
2. 자기구강건강상태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22%, 여학생은 10.9%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0$ ).
3. 치아정결 습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잇솔질 횟수는 많았으며, 점심식사 후 잇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잇솔, 치약 등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가 가장 높았다( $p = .000$ ). 치실 사용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인지여부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4. 간식섭취 습관은 남학생의 경우 1회(42.1%)와 2~3회(31.3%)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먹지 않았다'(34.5%)와 2~3회(25.1%) 순을 보였다. 주된 간식으로 과자, 케익 사탕류가 두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야채, 과일이라도 답하였다.
5. 치과치료에 대한 느낌으로 '내일 치과에 간다면 기분은?'이란 질문에 남, 여학생 모두 '별다른 느낌이 없다', '약간 불안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받기 위해 기다릴 때 기분은?'이라는 질문에 두 집단 모두 '많이 긴장된다', '약간 불안하다' 순으로 답하였으며, '치과진료 의자에 누워 있을 때 기분은?'이라는 질문에 '긴장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스케일링을 받기위해 치과진료의자에 누워있을 때 기분은?'이라는 질문에 대부분 긴장되고 약간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 참고문헌

1. Kim JB, Choi YJ: Public dental hygiene. KMS, Seoul, pp.10, 2000.
2. Lim BC: Oral health science. Chunggumoonhwasa, Seoul, pp.7, 1999.
3. The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06' Oral health research, 2007.
4. Sohn KC, Kim KH, Kim JB, Lee HC: Oral Health Status of Children aged 12 years in Pusan. Journal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1(2): 42-58, 1995.
5. Kim KE, Shin MM, Huh SY: A study on the oral health of 12-year old school children in Sung-Nam City. JDHS 6(1): 13-17, 2005.
6. Kim JY: The significant caries(SiC) index of high school

- students in Ulsan City. *JDHS* 6(1): 19-22, 2006.
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al health status survey. pp.119-222, 2003.
  8.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al health status survey. pp.130-209, 2006.
  9. Kim SJ, Ahn SH, Kim YH, Chung ES: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bout the dental health and the dental health conditions in elementary students in the Pusan ares. *Journal of Korean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69-84, 2004.
  10. Shin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bit of eating between meals and their dental care condition and their dental caries. *Bullen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1(1): 133-143, 2003.
  11. Nizel EA: Nutrition in preventive dentistry science of dental disease. 2nd ed. Sounders, Co. 1987.
  12. Lee UY: A study on which status of behavior to take snack foods and oral management in elementary school affect on dental car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yungnam University, 1994.
  13. Mun DN: A study on dental state of health and dental health behaviors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ir moth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1.
  14. Locsin R: The effect of music on the pain of selection post-operative patients. *Journal of Advance Nursing* 6: 19-25, 1981.

(Received May 19, 2008; Accepted June 11, 2008)

